



민주당 김선옥 후보가 14일 오전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운동원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가 14일 선거 운동원들과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무소속 박금자 후보는 14일 서구 광천터미널 앞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자신의 기호인 9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식 후보는 14일 오전 운천저수지 앞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필승 출정식'을 가졌다.

서구청장 재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김선옥·서대석·박금자·김종식 후보 첫 거리유세 후끈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가 14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레이스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선옥, 비민주 야 4당 단일 후보 서대석, 무소속 박금자·김종식 후보(기호 순) 등 각 후보들은 이날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 출정식을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선옥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된 이날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선거운동원 200여 명과 함께 출근길 유세를 상대로 '출근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주민들에게 "민주당이

수령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차 광주에 내려온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이 김 후보의 선거캠프를 깜짝 방문해 "꼭 당선돼 2012년 대선승리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며 격려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했다.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도 이날 야 4당 대표와 광주시장 위원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재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서 후보 측은 또 이날 서구 풍금사거리에서 야 4당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출

정식을 하고 민주당 독점 심판을 위해 야 4당 단일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서 후보는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등 야 4당 인사들과 함께 양동 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

무소속 박금자 후보는 이날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맑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박 후보는 거리 유세에 앞서 운동원들에게 "선거법이 규정된 틀 내에서 정당당한 메니페스트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는 광천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야 4당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출

정식을 하고 거리유세를 벌였다.

무소속 김종식 후보도 이날 운천저수지에서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청장 재선거 필승 출정식'을 갖고 세젤집에 나섰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운동원들은 "행정은 행정가가 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공명선거도 솔선수범하고, 성실하고 공순한 자세로 서구민이 김종식 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것"을 결의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주민자치기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극적 구조된 칠레광부 33명 한국 올라

칠레 축구협회 제의...스페인·영국 축구경기 관람도

69일만에 지하 700m 광도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칠레 광부 33인은 몸을 추스르는 대로 겨울 휴가지를 골라잡아야 할 것 같다. 세계 각국의 초청은 물론 칠레 국내 단체의 여행 제의도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그리스 광산회사 '엘민'은 일주

일간의 지중해 관광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하 광도에서도 축구경기를 봤을 만큼 열렬한 축구팬인 이들의 관광 일정에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마드리드와 영국에서 각각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순서도 포함돼 있다.

칠레 축구협회는 한국 여행을 제의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 곳곳에서 각국 축구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티셔츠도 담지하고 있다. 광도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료들의 기운을 북돋았던 '오락담담' 광부 에디슨 페냐(34)는 엘비스 프레슬리 엔터프라이즈(EPE)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았다.

대체로 건강 양호...장기 관찰·치료 들어갈 듯

지하 700m 광도에 약 70일간 갇혀 있다가 구조된 칠레광부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하지만 일부는 규제중 치료와 치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칠레 정부와 의료진이 13일 밝혔다.

'지하 감옥'에서 탈출한 광부들이 걸으려는 멀쩡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칠레 정부와 의료진이 13일 밝혔다.

하이메 마날리치 칠레 보건장관은 13일 현재 지금까지 코피아포 지역 병원(CRH)으로 후송된 구조자 16명의 건강 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하며 일부는 빠르면 다음 날 오후부터 퇴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날리치 보건장관은 그러나 1명은 심한 폐렴 증상을 보여 집중호흡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2명은 매우 심각한 치아 감염 때문

에 다음날 치과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부들은 흉부와 폐 검사 외에도 안과·피부과·정신과 등 다방면에 걸쳐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70일간 지하 생활을 하다 갑자기 환경이 바뀐 광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면증 등 후유증으로 길게는 수년간 고통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부 구조비용 최소 2200만달러

광산 소유 '산 에스테반' 비용부담 어려울 듯

칠레 북부 산 호세 광산에 매몰됐던 33명의 광부들을 구조하는데 든 비용이 최소한 2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장에 설치된 '희망 캠프' 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용은 이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칠레 일간 라 테세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런 구조비용은 산 호세 광산 소유업체인 산 에스테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칠레 국영 구리회사이자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코델코(Codelco)가 전체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1500만달러를 냈고, 민간 업체들이 500만달러를 부담했다.

구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광부들의 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굴착기 T-130 사용료로, 매일 1만8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정부는 광부 구조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산 에스테반에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8월 5일 광산 붕괴사고 발생 이후 일손을 놓고 있는 300여명의 광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조차 대출을 받아 처리한 상황에서 산 에스테반이 이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치공원 명품화 지지부진...사업추진 의지 있다

■ 시의회 사흘째 시정질문

"특급호텔 통로 혈세 쏟아부은 이유 뭐냐"

광주시의회는 14일 제1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실·국에 대해 사흘째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조오섭(민주·북구 2)·서정성(민주·남구 2) 의원이 나서 광주시의 우치공원 명품화 지지부진, 특급호텔 특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우치공원 명품화 추진 사업 지지부진=조오섭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2월 우치동 물원 시설개선사업 용역을 마치고 지난 7월 우치공원 명품화 테스크포스 팀까지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시설개선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확보 방안

이 세워지지 않아 사업추진 의지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1991년 개장한 금호패밀리랜드의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이 내년 6월 만료되고, 워키투어 상태인 사업주 측이 신규투자를 외면하고 있는데도 광주시는 협약만료 이후의 상황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무상사용기간이 내년 6월5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금호 측의 사용기간 연장 요구나 재협상 의지와 관계없이 정당한 공보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급호텔 온갖 특혜=서정성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동안 수많은 특혜를 준데다 추가로 연결통로(Sky-Walk) 설치를 지원해주는 것은 특정 사업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성격이 강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은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따르면 광주시는 특급호텔과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연결해주는 연결통로 '스카이워크(Sky-Walk) 건립예산으로 총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8억원만을 시비로 지원키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설계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300만원 필름 납부 3년 연장

20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시효를 수개월 앞두고 최근 소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강연회 등 운전자로 추가로 연결통로(Sky-Walk) 설치를 지원해주는 것은 특정 사업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성격이 강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은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날 현재 변제한 액수는 533억여원이며, 나머지 1672억여원은 이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독촉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4만7천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아 추징 시효가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었지만 이번 납부로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연환뉴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뚝뚝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m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산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지·목걸림, 수직지림·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광고심의필 : 1056-0600